

기 도 ..... 인 도 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명절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 송 다 같 이

찬 송 다 같 이
1절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2절 : 온 인류 마귀 궤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3절 :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기도 문 ..... 다 같 이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 (인도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 (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 (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골로새서 3:16-17
- 권면과 위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추석을 맞으며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해 중심을 기울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열매를 나타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열매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할 감사사이므로 더욱 마음으로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안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감사로, 옹취범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inspire of) 성숙된 감사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드려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라도 시간을 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려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삶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곧 삶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인생의 본분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듯이 신앙인은 감사로서 알게 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감사, 시간으로 감사, 삶 전체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찬 송 (다같이) : 305장
-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순서 -

목 도 ..... 시 12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 도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찬 송 찬 송 다 같 이

찬 송 다 같 이
1절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성 시 교 독 ..... 감사절(2) .....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 중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회 중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회 중 :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기 도 ..... 가 족 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  
시고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하여 기뻐함으  
로,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1:25-27 ..... 인 도 자**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 씬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인 도 자**

오늘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보통 추석에는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못 나눴던 정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 나사로의 죽음**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였을 때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는 있어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돌 문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절망에 처했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롬8:28).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둡고 깊은 터널과 같은 코로나 19 와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현재를 이겨나갈 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